

소통과 협력으로 광고시장의 선순환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정치 | 제11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을 맡게 되니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섭니다.

최근 우리 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광고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지만 넓게는 소비와 생산을 촉진해 경기를 부양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주, 매체사, 광고대행사 등의 상호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고주체들 간의 상생이 선행될 때, 국민도 우리 기업과 광고의 진정성을 보다 신뢰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근한 예로 최근 광고주와 중소 대행사간의 상호 활력을 공유하려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와의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우리 기업이 사랑받을 때, 제품도 인정받고 기업이미지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보듯이 소통, 나눔, 배려를 이야기하는 광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광고주협회는 광고 선진화와 자유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ABC 실현과 미디어조사 발표 등을 통해 기업의 광고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하면서, 광고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광고시장의 선순환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주와 매체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상생의 광고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체사와의 간담회, KAA Awards 등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광고주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고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광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광고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완화하고 매체별 영향력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음해성 보도나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광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기업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광고주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수렴, 개선하여 광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AA**